

사회적 자본과 부패와의 관계에 대한 OECD 국가간 비교연구*

-교량형 사회적 자본과 결속형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Corruption Among OECD Countries

- Focused on Bridging Social Capital and Bonding Social Capital-

이 정 주(Lee, Chung Joo)**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social capital' accumulation and the level of corruption by classification of social capital' types(bonding social capital, bridging social capital) among OECD countries.

As a result of analysis, I find that countries(Norway, Sweden, Finland, New Zealand, Australia) which fall under the high level of bridging social capital resident in a generalized trust but the low that of bonding social capital resident in particularized trust, are less corrupt than just the opposite countries(Turkey, Slovakia, Poland, Mexico, Korea).

Especially Korea with a strong nepotism culture reveals that the level of bridging social capital is low but that of bonding social capital is high among OECD countries. In addition, the degree of bonding social capital is higher than twice that of bridging social capital in Korea. So to speak, Korea is country with a poor social capital. Therefore, I find that Korea should make an effort to lower bonding social capital but raise bridging social capital in order to be the country of the more integrity.

Key Word: 결속형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 교량형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 부패(Corruption), 일반화된 신뢰(Generalized trust), 특수화된 신뢰(Particularized trust)

I. 문제제기

사회적 자본은 부르디외와 콜만에 의해 사회학적으로 체계화 된 이후 퍼트남, 후쿠야마 등에 의해 확장·응용되면서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 되었다. 또한 이 개념은 세계은행이 저개발국 개발사업의 키워드로 채택하고 있

* 본 논문은 2008년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정책팀 차장

거나,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프로그램의 핵심 아젠다인 '워싱턴 컨센서'에서도 활용될 만큼 널리 사용되고 있다(김상준, 2004).

이처럼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 배경으로는 개인주의의 심화, 사회의 다원화로 인한 가족이나 직업과 같은 일상관계의 붕괴해결, 지식기반경제의 출현으로 인한 지식공유의 필요성 증대, 세계화·정보화 진행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평등 심화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이다(이영현, 2006).

하지만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항상 긍정적인 역할을 행하지만 않는다. 즉 사회적 자본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정부분의 순기능적인 점과 역기능적인 점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적 자본의 연구자인 Putnam이 네트워크, 호혜성의 규범과 관련하여 네트워크 내부에서 정보를 가진 사람에게는 사회적 자본이 일반적으로 유익할 것이 될 수 있지만, 네트워크 밖에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항상 긍정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을 언급했듯이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Warren, 2001).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갈등, 빈곤, 경제적 발전, 부패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 국한되어 연구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적 자본과 부패와 관련하여 몇몇 되지 않는 기존 연구의 대다수가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의 대명사인 일반적 신뢰(generalized trust)가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역할에 초점을 두으로써 다른 집단에 대한 배타적인 성격을 지닌 특수화된 신뢰(particularized trust)가 부패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부정적 사회적 자본¹⁾이라 할 수 있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부패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Harris(2007)의 연구를 계기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균형적 관점의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부패를 감소시킨다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적 자본이 부패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유형구분을 통한 부패와의 연구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유형구분을 통해 이후 학자들이 국가간 부패비교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실마리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하에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을 Putnam의 분류방식에 따라 결속형 사회적 자본과 교량형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자본의 축척 정도와 부패수준과의 관계를 비교분석하도록 한다.

특히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일반적 신뢰가 내재된 교량형 사회적 자본이 높고 특수화된 신뢰가 내재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낮은 군에 해당되는 국가가 교량형 사회적 자본이 낮고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높은 군에 해당되는 국가보다 청렴한지를 실증

1) 일부 학자들은 부정적 사회적 자본(negative social capital)을 '사회적 반자본(social anti-capital)'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상대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교량형 사회적 자본보다 학연·혈연·지연을 중시하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과연 그러한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자본과 부패의 개념

사회적 자본은 개념상의 모호성, 이론적 치밀함의 결여,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부족, 측정의 어려움으로 아직까지는 합의된 정확한 개념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호혜성의 규범, 신뢰”라고 정의되고 있다(이영현, 2006). 이와 유사하게 부패의 개념도 연구자의 주관이나 경험, 시대적 환경,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와 세계은행(World Bank)의 정의가 준용되고 있다.²⁾

한편 사회적 자본과 부패와의 상호관련성을 다룬 대다수 실증연구는 Putnam의 유형 분류에 따라 일반적 신뢰가 내재된 교량형 사회적 자본과 특수화된 신뢰가 내재된 결속형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본을 주로 규범적 차원의 일반적 신뢰라고 정의함으로써 일반적 신뢰의 수준과 인식된 부패수준과의 관계를 입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부패의 원인을 일반적 신뢰의 부족과 같은 사회문화적 측면에 기인한다고 보고 신뢰제고가 부패를 감소시킨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다.

이와 달리 최근 Harris(2007)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유형 중 특수화된 신뢰라 할 수 있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자본이 부패를 증가시킬 수도 있음을 밝혔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에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을 균형적 관점에서 부패와 연계시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을 일반적 신뢰와 특수화된 신뢰가 공존되는 규범으로 정의하도록 하며, 부패는 대다수의 연구에서 사용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정의를 따르도록 한다.

2. 사회적 자본과 부패와의 관계

2) 세계은행에서는 부패를 사적인 이익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오용 혹은 공권력의 남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1) 신뢰와 사회적 자본(교량형 및 결속형)과의 관련성

신뢰는 신뢰관계에서 내재된 보증(warrant)의 유형에 따라 일반적 신뢰(generalized trust)와 특수화된 신뢰(particularized trust)로 구분할 수 있으며(Warren, 2001), 일반적 신뢰라 함은 대부분의 사람이 신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며, 특수화된 신뢰는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만 믿는 것을 의미한다(Uslander, 2004).

신뢰의 관계는 신뢰하는 사람(truster)이 신뢰받는 사람(trustee)의 자원으로 부터 편익을 받을 수 있게 하며 그 역의 관계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신뢰의 위험이 개입되고 이에 대한 의지와 방안이 서로 상이 할수록 일반적 신뢰와 특수화된 신뢰간의 차이점은 좀 더 뚜렷해 질 수 있다(Warren, 2001).

일반적 신뢰자(truster)는 이방인의 의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며 자기 주위의 사람들과 자기와 친분이 없는 사람에 대해 차별화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의 위험을 본인이 좀 더 많이 떠맡는 경향이 있다(Uslander, 2002). 이러한 이유로 일반화된 신뢰자(truster)는 교량적 사회적 자본의 좋은 형성자이기도 하다. 한편 특수화된 신뢰자는 좀 더 많은 위험을 인지하며, 이방인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며, 그가 잘 아는 사람들이거나 가족, 소규모 공동체, 교회, 종교집단과 같은 집단멤버십을 공유한 사람들에게만 신뢰를 한정한다. 이러한 특수화된 신뢰는 강한 연대를 특징으로 하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 형성을 용이하게 한다.³⁾ 특히 Simmel이 언급한 것처럼 특수화된 신뢰가 인종주의, 자기민족중심주의, 종교적 박해의 형태로 부정적인 사회적 자본을 초래한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2) 사회적 자본(결속형 및 교량형)과 부패와의 관련성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 수준에 따라 강력한 공동체 내부의 연계를 통해 집단의 정체성과 공동목표를 강조하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공유목표가 서로 상이한 공동체 간의 수평적 관계를 중시하는 교량형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Gittell and Vidal 1998; Putnam, 2000)

이러한 두 가지 사회적 자본의 유형은 서로 다른 질(qualties)과 편익(benefit)을 가지고 있다. 교량형 사회적 자본은 외부지향적인 만남과 다양하게 사회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며 집단이 접근할 수 없었던 자원을 연계시킬 수 있게 해 준다. 예를 들어 맞벌이를 행하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애기를 돌봐 주거나 집을 지켜주며, 일이 필요한 구직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긴급한 현금이 필요할 때 즉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가치 있는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교량형 사회적 자본은 정보흐름을 향상시키며, 광범위한 동일성과 상호호혜성을 발생시킴으로써 부패와의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3) 일반적 신뢰와 특수화된 신뢰의 차이점은 Putnam(2000)이 교량형 사회적 자본과 결속형 사회적 자본에서 도출한 차이점과 유사하다(Uslander, 2004).

한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본질적으로 배타적이며, 내향적인 만남과 교회, 독서 집단, 형제애와 같은 조직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사한 사람들의 배타적인 집단을 진전시킨다. 제한된 연대와 신뢰 하에 집단내부에서의 강력한 충성을 발생시키며, 특수한 호혜성이 좋은 것이며, 사회적으로 소수 집단(marginalized group)에게 사회적이면서 심리적인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집단에서의 강력한 충성심으로 말미암아 외부집단에 대한 강력한 적대감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좀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편협함, 분파주의, 공동체의 폐쇄성, 불평등성은 교량형 사회적 자본이 아닌 결속형 사회적 자본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Gittell and Vidal, 1998; Warren, 2001).

특히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부정적 사회적 자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외부인 배제(exclusion of outsiders), 집단구성원에 대한 지나친 요구(excess claims on group members), 개인자유에 대한 제재(restriction on the individual freedoms), 규범의 하향평균화(downward leveling norms)와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Portes, 1998).

첫째, 외부인에 대한 배제라 함은 학연·혈연·지연과 같은 연줄(ties)이 자기가 속한 집단구성원에게만 편익을 가져다주며 그러한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편익을 향유할 수 있는 접근의 기회를 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Waldinger(1995)는 이탈리아, 아일랜드, 폴란드계 이주민인 후손이 뉴욕의 건설무역, 소방, 경찰연합을 강제력 있게 통제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또 다른 사례로 몇몇의 East Coast 도시의 생산기업 증가에 대한 한국 이주민의 통제력, 뉴욕 다이아몬드 무역에 대한 유대인 상인의 독점력, 마이애미 경제의 수많은 영역에 대한 쿠바인의 지배력을 들 수 있다. 각각의 경우는 제한된 연대와 신뢰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자본의 형태로서 집단 경제발전의 핵심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Waldinger(1995)가 지적하듯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아닌 자기와 유사한 관계를 가진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경제적 교환의 용이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자본은 암묵적으로 그들과 다른 외부인을 구속하는 것이다.

둘째, 집단구성원에게 대한 지나친 요구라 함은 앞서 언급한 사회적 자본의 첫 번째 부정적 속성인 집단 또는 공동체의 폐쇄성의 이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성공한 사람에 대해 가까이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부담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공한 기업가가 된 것은 우리 집단 또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으로, 이익에 대한 대가를 성공하지 못한 사람 특히 친인척과 나누어서 공유하자는 입장으로 성공적인 기업가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라고 볼 수 있다. Geertz는 Bali에서 상업적 기업의 부상이라는 연구에서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그리고 확대된 가족 내에서 상호간의 원조를 금지하는 강력한 규범으로 인해 오히려 성공적인 기업가가 직업과 대부금을 추구하는 친척에 의해 지속적으로 살해되는 것에 주목했다(Geertz, 1963). 그러한 결과는 유망한 기업가가 복지숙박소업자로 전환되거나 경제적 확장을 억제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예에 관심을 보였던 Granovetter(1995)는 전통적 기업가 사이에 인정되었던 고전경제발전이론이 문제점⁴⁾이라는 것에 주목했다. Weber(1965)는 역시 청교도 기업가

의 성공의 주요한 이유의 하나로서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물인격적인 경제적 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동일한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견고한 공동체 사회에서의 발견되는 유형인 안락한 집단간의 관계는 거대한 무임승차의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게으른 사람이 공유된 규범적인 구조에서 지원되는 모든 유형의 수요를 향유해야 함을 주장한다. 그들에게는 사회적 자본이 구성원들의 자원에 대한 특권화된 접근으로 인식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가적 정신의 축적과 성공의 기회가 소멸된다.

셋째,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 함은 공동체 연대로 인한 개인적 자유의 제한임을 의미한다. 공동체 혹은 집단 참여는 반드시 일치성(conformity)을 요구한다. 조그만 한 지역에서는 모든 이웃들이 서로를 알며, 길모퉁이에 있는 상점에서 외상으로 식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어린이들이 다른 어른들의 보호아래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다. 그러한 거리에서의 사회적 통제의 수준은 강력하고 개인적 자유의 구속이 상당히 존재하며, 그러하기 때문에 좀 더 젊고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떠난다. Boissevain(1974)는 Malta의 섬에서 마을 삶의 연구에서 마을 주민간 밀도 있게 엮여진 네트워크가 공동체 삶의 기반과 지역규범에 강력하게 지배됨으로써 결국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율권을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음을 보고했다. 이외에 개인 자유에 대한 제약의 예로 이주민 학생들 사이의 높은 수준의 패밀리적인 연대가 등급과 표준화된 시험점수를 포함하여 다른 교육적 결과와 부정적으로 관계가 있음이 밝혀짐으로써 “패밀리는 결속력을 강화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연대는 특정한 결과를 용이하게 하는 것보다 저해한다고 설명되었다(Rumbaut, 1977).

넷째, 규범의 하향평균화라 함은 집단적 연대로 인해 개인의 발전적 가치가 하향평균화됨을 의미한다. 집단적 연대는 주류사회에 대한 역경과 반대의 일반적 경험에 의해 결합되는 상황에서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개인적 성공 이야기는 집단적 응집을 저해하는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집단적 응집이라는 것은 정확히 개인의 성공이라는 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학대받는 집단들이 그러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분수에 맞는 것이며, 그것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으로 규범을 하향 평준화 시킨다.

앞서 언급된 외부인 배제, 집단구성원에 대한 지나친 요구, 개인자유에 대한 제재, 규범의 하향평균화와 같은 부정적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며, 제한된 연대와 신뢰에 입각한 집단주의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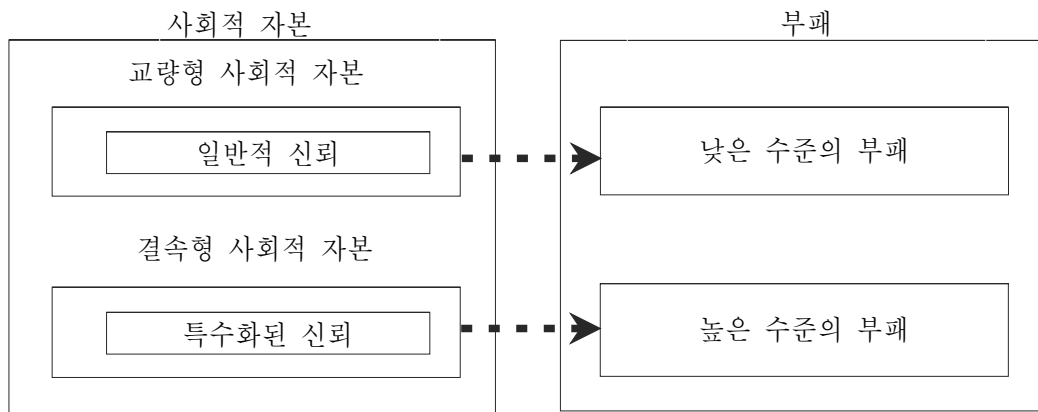
집단주의 속성이 강한 사회에서는 사회의 정체성이 집단구성원에 근거한 규범, 가치,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집단주의적 의사결정이 최고이고, 집단은 집단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서 개인을 보호하는 특징이 존재한다. 따라서 집단충성(group loyalty)이 공익과 사익의 구분을 흐리게 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거래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

4) 스펀터의 경제발전이론에 따르면 기본 가정의 내용으로 혁신적 기업가의 공급수가 사회적 분위기(Social Climate)에 달려있다는 점과 소득 재분배상황이 사회적 분위기를 적지 않게 반영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혁신적인 기업가에게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특히 각종 이권에 대해 인·허가권을 지니고 있는 공직자는 그들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호의의 대가로 뇌물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Getz & Volkema, 2001).

따라서 자기와 유사하고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중시하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국민다수의 일반적 이익이 아닌 자기가 속한 집단의 특수화된 이익을 우선시 함으로써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조은경·이정주, 2006; Bryan, 1999).

앞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교량형 사회적 자본은 일반적 신뢰의 규범이 내포됨에 따라 낮은 수준의 부패가 유발되며, 이에 반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특수화된 신뢰 규범이 내포됨에 따라 높은 수준의 부패가 유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⁵⁾



<그림 1> 사회적 자본과 부패와의 관계

3. 관련 선행연구 검토

사회적 자본과 부패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상호간의 인과방향이 모호해 논쟁거리가 되고 있지만 사회적 자본을 주어진 사회의 문화 및 조직적 특성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사회적 자본이 부패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혹은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앞선 <그림 1> 사회적 자본과 부패수준과의 관계에서 보았듯이, 기존 선행연구는 교량형 사회적 자본에 내포된 일반적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부패가 감소한다는 견해와 결속형 사회적 자본에 내포된 특수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부패가 증가한다는 견

5) III. 사회적 자본과 부패와의 관계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를 위해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교량형 및 결속형 사회적 자본과 부패간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각 1% 유의수준 하에 조정화된 R2 값이 0.78(F=56.65), 0.67(F=32.70)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으로써 교량형 사회적 자본이 많이 축적된 국가일수록 낮은 수준의 부패가 발생하며,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많이 축적될수록 높은 수준의 부패가 발생하는 국가임을 알 수 있었다.

해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교량형 사회적 자본(일반적 신뢰)이 부패를 감소시킨다는 견해

La Porta et al(1997)는 33개 국가를 대상으로 1인당 GDP를 통제변수로 사용하면서 신뢰가 부패에 부정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부패를 감소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입증하면서도 역의 미약한 관계를 발견한 Uslaner(2001)에 의해서도 지지되었다. 후속 연구에서 Uslaner(2004)는 일반화된 신뢰의 시차값과 일반신뢰에 대한 도구변수로서 법률시스템의 공정성에 관한 측정치를 사용함으로써 신뢰가 부패에 영향을 미치고 그 역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입증했다. Bjornskov(2003)는 부패의 수준이 일반신뢰와 감독, 소득의 결과로서 낮아질 수 있음을 주인-대리인 모델을 통해 설명하면서 사회적 자본이 부패를 감소시키는 강력한 인과관계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인 측면에만 초점⁶⁾을 둠으로써 Putnam이 언급한 사회적 자본의 어두운 측면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가지고 있는 분파주의와 편협함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2) 결속형 사회적 자본(특수화된 신뢰)이 부패를 증가시킨다는 견해

최근 이러한 인식하에 Lipset and Lenz(2000)는 1990년도 세계가치조사(WVS)와 세은행으로부터의 통계치를 활용하여 부정적 사회적 자본이라 할 수 있는 패밀리즘 척도를 만들어, 부패에 대한 패밀리즘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최초로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그들은 높은 패밀리즘 점수를 기록한 국가가 좀 더 부패한 경향이 있음을 알아냈다. 특히 가족적인 연대가 강한 아시아국가가 대부분 이에 해당되는 반면 패밀리즘 점수가 낮은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국가들은 덜 부패한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관계는 국가내에서 1인당 소득과 프로테스탄트의 비율을 통제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결과를 유지하였다.

Lipset and Lenz(2000) 연구의 연장선에서 Harris(2007)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 사이의 특수화된 신뢰에 기반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을 내부지향적 결속형 사회적 자본(inward-bonding social capital)과 외부지향적 결속형 사회적 자본(outward-bonding social capital)으로 구분⁷⁾하고, 이들 모두가 부패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

6) 대다수의 연구가 일반화된 신뢰 즉 교량형 사회적 자본에 초점을 두면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것이며 이는 곧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7) 내부지향적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가족과 친구간의 관계의 가까운 정도를 의미하며, 외부지향적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외부사람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감소시키는 정도라고 정의했다(Harris, 2007). 하지만 외부사람에 대한 신뢰와 협력이 감소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이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부지향적 사회적 자본의 정의와 기존의 일반적 신뢰의 정의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라 함은 내부지향적 결속형 사회적 자본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했다.

3) 선행 연구를 통한 시사점

하지만 선행연구를 보듯이 사회적 자본과 부패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가 미약한 편이며, 앞선 두 가지 경향의 연구들은 국가를 단위로 분석 하되, 단지 사회적 자본과 부패와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사회적 자본 축척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비교분석을 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진다.

다만 기존 연구가 최근 사회적 자본을 부패를 감소시키는 교량형과 부패를 증가시키는 결속형으로 구분함으로써, 이들 유형으로부터 국가간의 사회적 자본의 축척정도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국가 간 사회적 자본과 부패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III. 사회적 자본과 부패와의 관계에 대한 국가간 비교분석

1. 비교분석을 위한 접근 방법론

사회적 자본은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일반적 신뢰와 특수화된 신뢰가 공존하는 상태이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측정변수는 일반적 신뢰가 내재된 교량형 사회적 자본과 특수화된 신뢰가 내재된 결속형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도록 한다. 이들 사회적 자본은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⁸⁾의 설문문항을, 부패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를 사용한다. 이들 자료를 활용하는 이유로 세계가치조사는 국가별, 시기별로 설문의 구성이 다소 상이하지만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최선의 자료이며(김태종, 2007), 부패인식지수(CPI) 또한 국가를 단위로 매년 발표되는 자료로 국가 간의 부패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측정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8) 세계가치조사는 유럽가치조사집단(EVSG)와 세계가치조사협회(WVSA)에 의해 수행되며, 양기관은 Inglehart가 주도하는 사회과학자의 국제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는 1981-1984(21개국), 1989-1993(43개국), 1994-1999(53개국), 2000-2004(70개국), 2005-2006(99개국)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세계인구의 약 85%를 설명하는 90여개 국가의 국가 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삶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제도나 정부에 대한 신뢰에 이르기까지 문화적 특성의 다양성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18세부터 85세까지 다양하게 모든 거주자의 대표적인 표본으로 구성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2005-2006년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이는 제외하도록 한다.

<표 1> 결속형·교량형 사회적 자본 및 부패의 측정지표

측정변수			측정지표	연구자	출처
사회적 자본	결속형 사회적 자본	특수화된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삶의 주요한 목적이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응답(매우 동의한다 + 동의한다)한 사람의 비율 ◦친구가 기대한 것에 맞게 행동하는 노력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응답(매우 동의한다 + 동의한다)한 사람의 비율 ◦부모의 자질과 결점이 어떠한간에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이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부축적에 있어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서만 자신이 부유해 질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지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Harris(2007)	WVS (세계가치조사)
	교량형 사회적 자본	일반화된 신뢰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신뢰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	La Porta et al, 1997; Uslaner, 2001; 2004	
청렴도			◦부패의 인식 정도(CPI)		TI(국제투명성기구)

사회적 자본 중 특수화된 신뢰가 내재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가족과 친구간의 특수 하면서 제한된 신뢰에 입각한 관계의 친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측정지표로는 Harris(2007)가 내부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요인변수로 사용한 “삶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부모를 자랑스럽게 해 주는 것이다”, “친구가 기대한 것에 맞게 노력을 행한다”, “부모의 자질 혹은 결점과 상관없이 무조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등의 설문문항으로 구성한다.

한편 일반적 신뢰가 내재된 교량형 사회적 자본은 대다수의 사람이 신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며 측정지표로는 기존 연구에서 대부분의 학자(La Porta et al, 1997; Uslaner, 2001; 2004)들이 사용한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믿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의 설문문항으로 구성한다.

사회적 자본과 부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대상으로 OECD국가⁹⁾ 30개국 중 우리나라

9)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국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로는 사회적 자본과 부패의 연구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주제로 경제발전이 주로 논의되기 때문이다.

를 포함하여 측정가능한 지표가 모두 존재하는 17개 국가¹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며, 결속형 및 교량형 사회적 자본은 국가별로 조사된 연도의 평균값¹¹⁾을 사용하며, 부패는 지난 8년(2000년~2007년)의 CPI의 평균값을 사용한다.¹²⁾

2. 교량형 사회적 자본과 부패의 수준

국가별 교량형 사회적 자본의 축적정도를 살펴보면 OECD 17개국 중 노르웨이(60.4)가 교량형 사회적 자본이 가장 높은 국가로, 그 다음 순으로는 스웨덴(58.1), 핀란드(54.0)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은 국가청렴도가 5위안에 들만큼 청렴도가 높은 나라들이다. 이에 반해 교량형 사회적 자본이 가장 낮은 국가로는 터키(12.4), 슬로바키아(20.5), 폴란드(22.6)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국가의 청렴도는 17개국 중 14, 15, 16위(공동)를 차지할 만큼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량형 사회적 자본이 31.6으로 교량형 사회적 자본의 평균비율인 36.17보다 낮으며, 17개국 중 10위로 교량형 사회적 자본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청렴도 역시 12위(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 내에 사람들 간에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일반화된 신뢰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특이할 만한 것으로 독일의 경우, 교량형 사회적 자본이 29.5점(11위)로 우리나라 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독일이 1990년 10월 동독과 서독이 서로 통일된 이후 동서독간의 빈부격차로 인한 국민상호간의 신뢰의 장벽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법치주의¹³⁾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극복함으로써 청렴도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0) 17개국으로는 핀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독일(동서독포함), 일본, 미국, 스페인,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터키, 체코, 멕시코, 대한민국이다.

11) 일례로 한국의 경우, 1차 조사(1981-1984년) 중 1982년, 2차 조사(1983-1993년) 중 1990년, 3차 조사(1994-1999년) 중 1996년, 4차 조사(2000-2004년) 중 2001년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12) 연구의 방법론상으로 사회적 자본과 부패 축적형태를 비교하기 위해 조사된 연도별 평균값을 각각 사용함으로써 국가별 시대적 변화에 따른 차이점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사회적 자본과 부패는 사회문화적 속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특수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시대별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고 분석하였다.

13) 2006년을 기준으로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수 중 법치주의(rule of law) 부문에서 212개 국가 중 12번째(1.77)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World Bank, 2007, Governance Matters VI)

<표 2> 국가별 교량형 사회적 자본의 축척정도와 청렴도

국가	교량형 사회적 자본		청렴도	
	비율(%) ¹⁾	순위	점수 ²⁾	순위
한국	31.6	10	4.6	12
핀란드	54.0	3	9.7	1
뉴질랜드	47.5	4	9.5	2
스웨덴	58.1	2	9.2	3
케나다	45.1	5	8.7	5
노르웨이	60.4	1	8.8	4
오스트레일리아	42.0	6	8.6	6
독일 ³⁾	29.5	11	7.8	7
일본	39.5	8	7.1	9
미국	40.5	7	7.5	8
스페인	32.3	9	7.0	10
헝가리	25.9	13	5.1	11
슬로바키아	20.5	16	4.1	14
폴란드	22.6	15	3.8	15
터키	12.4	17	3.5	16
체코	25.8	14	4.3	13
멕시코	27.2	12	3.5	16
평균	36.17	-	6.64	-

- 1) 총 응답자 중 일반적 신뢰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며, 특정국가의 교량형 사회적 자본의 비율이 100%에 가까울수록 교량형 사회적 자본이 높음을 의미하며, 0%에 가까울수록 낮음을 의미한다.
- 2) 특정국가가 10점 만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하다는 의미이며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하다는 의미이다.
- 3) 동독과 서독을 합하여 계산하였다.

3. 결속형 사회적 자본과 부패의 수준

국가별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축척정도를 살펴보면 OECD 17개국 중 터키(55.3)가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가장 높은 국가로, 그 다음 순으로는 한국(47.1), 멕시코(46.1), 폴란드(45.6)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들은 국가청렴도가 10위권 이상으로 하위권에 들 만큼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가장 낮은 국가로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순이며 이들은 교량적 사회적 자본을 많이 가진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의 청렴도는 17개 국가 중 1, 3, 4위를 차지할 만큼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청렴한 국가일수록 교량형 사회적 자본이 많고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적음을 보여준다.¹⁴⁾

14) 교량형 사회적 자본과 결속형 사회적 자본 간의 상관분석 결과 1% 유의수준 하에 상관계수

특히 우리나라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41.7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평균비율인 36.18보다 높으며, 17개국 중 2위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학연·혈연·지연 관계 등을 고리로 수직적·종적 인맥을 중시하는 부패친화적 연고주의 문화에 기인하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청렴도를 10점 만점 중 4.6점(지난 8년 평균)대에 머물게 하는 주요한 장애요인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3> 국가별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축척정도와 청렴도

국가	결속형 사회적 자본		청렴도	
	비율1)	순위	점수2)	순위
한국	47.1	2	4.6	12
핀란드	23.7	17	9.7	1
뉴질랜드	26.0	14	9.5	2
스웨덴	23.8	15	9.2	3
캐나다	37.4	7	8.7	5
노르웨이	23.8	15	8.8	4
오스트레일리아	33.8	11	8.6	6
독일3)	26.2	13	7.8	7
일본	33.3	12	7.1	9
미국	36.3	9	7.5	8
스페인	43.2	5	7.0	10
헝가리	36.6	8	5.1	11
슬로바키아	41.4	6	4.1	14
폴란드	45.6	4	3.8	15
터키	55.3	1	3.5	16
체코	35.4	10	4.3	13
멕시코	46.1	3	3.5	16
평균	36.18	-	6.64	-

1) 총 응답자 중 특수화된 신뢰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특수화된 신뢰의 측정지표 평균값)을 의미하며, 특정국가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비율이 100%에 가까울수록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높음을 의미하며, 0%에 가까울수록 낮음을 의미한다.

2) 특정국가가 10점 만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하다는 의미이며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하다는 의미이다.

3) 동독과 서독을 합하여 계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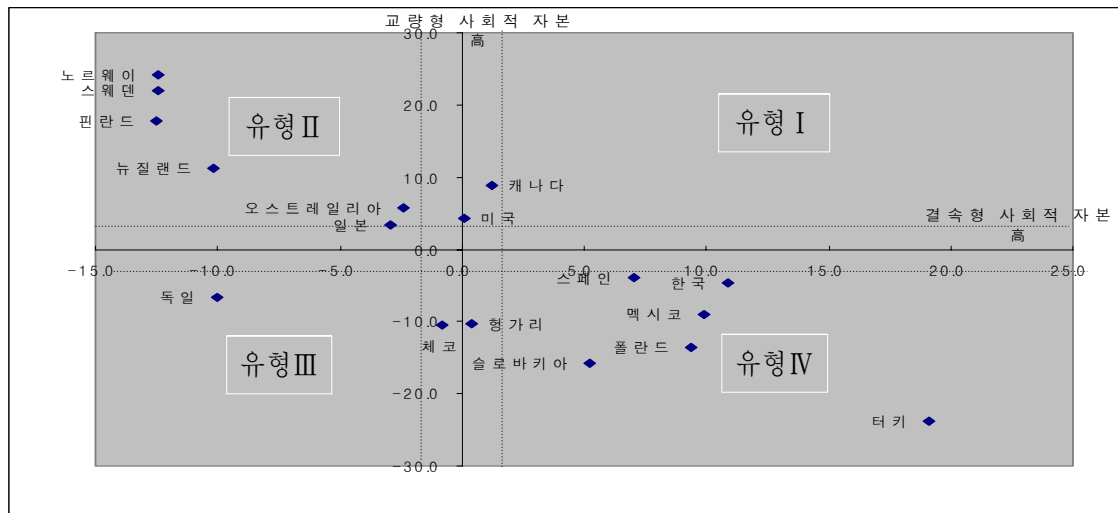
4. 교량형 사회적 자본과 결속형 사회적 자본간의 비교를 통한 부패수준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교량형 및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각각의 측정치에서 평균값을 뺀 값으로 표준화 하여 세로축은 교량형 사회적 자본을, 또 다른 한축인 가로축은 결속

값이 -.81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형 사회적 자본으로 놓고 국가별 사회적 자본의 유형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이들 국가 중 교량형 및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표준오차¹⁵⁾에 따라 <유형 I>, 혹은 <유형 II>에 포함될 수 있는 미국, 캐나다와 <유형 III>또는 <유형 IV>에 포함될 수 있는 체코, 헝가리, 그리고 <유형 II>또는 <유형 III>에 포함될 수 있는 일본을 제외하고 분석하도록 한다.



<그림 2> 사회적 자본의 유형에 따른 국가분류

<유형 IV>은 일반적 신뢰가 내재된 교량형 사회적 자본이 낮고, 특수화된 신뢰가 내재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높음으로써 ‘빈약한 사회적 자본(poor social capital)’이 지배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터키,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이 이에 속하며, 이들 국가의 부패수준 평균값은 4.4점으로 나타나 지난 8년간 평균인 체코의 부패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유형 IV>의 정반대인 <유형 II>는 교량형 사회적 자본이 높고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낮아 ‘좋은 사회적 자본(good social capital)’이 지배하는 국가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 국가의 부패수준의 평균값은 9.2점으로 지난 8년간의 평균인 스웨덴의 부패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 두 가지 유형의 청렴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교량형 사회적 자본이 높고,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낮은 국가(<유형 II>)가 교량형 사회적 자본이 낮고,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높은 국가(<유형 IV>)보다 훨씬 더 청렴한 것으로 나타났다($F=49.444$,

15) 평균값의 정확도를 알 수 있게 하는 표준오차의 경우, 결속형 사회적 자본과 교량형 사회적 자본이 각각 2.29와 3.34로 나타났다. <그림 2>의 가로축 및 세로축의 점선이 이를 반영한 것이다.

$p<0.01$).¹⁶⁾

한편 <유형 I>과 <유형 III>은 각각 교량형 사회적 자본 및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모두 높거나 낮은 상태로 <유형 IV>가 결속형 사회적 자본을 낮추거나 교량형 사회적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유형 II>의 형태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기적 사회적 자본(transitional social capital)’의 유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¹⁷⁾

결속형 사회적 자본 및 교량형 사회적 자본이 모두 낮은 <유형 III>의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독일은 결속형 사회적 자본(-10.0)이 교량형 사회적 자본(-6.7)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유형 III>에 속하나 청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OECD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유형 IV>인 교량형 사회적 자본이 낮고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높은 국가로 청렴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량형 사회적 자본(-4.6)에 비해 결속형 사회적 자본(10.9)이 2배 이상 높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뢰적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신뢰가 일반적인 다른 사람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일차집단에게만 주로 한정됨으로 저신뢰 사회라고 규정한 Fukuyama(2000)의 연구와, 학연·지연·혈연과 같은 연고주의 문화가 우리나라 부패의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한 조은경·이정주(2006)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단순히 좋은 것이며 사회문제 특히 부패문제를 해결하는데 만병통치약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자본 또한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인식하에 사회적 자본에 대한 균형적 관점의 연구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것의 일환으로 사회적 자본을 Putnam의 분류방식에 따라 결속형 사회적 자본과 교량형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하여 OECD 국가 간 부패수준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 신뢰가 내재된 교량형 사회적 자본이 높고 특수화된 신뢰가 내재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낮은 군에 해당되는 국가(유형 II: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가 교량형 사회적 자본이 낮고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높은

16) <유형 II>과 <유형 IV>간의 청렴도 차이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57.480	1	57.480	49.444	.000
집단-내	9.300	8	1.163		
합계	66.780	9			

17) 결속형 사회적 자본 및 교량형 사회적 자본이 높은 <유형 I>의 국가는 본 연구 분석결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해당되는 국가(유형Ⅳ: 터키, 슬로바키아, 폴란드, 멕시코, 한국)보다 청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결속형 사회적 자본 및 교량형 사회적 자본이 모두 낮은 <유형Ⅲ>로 분류된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독일은 국가내에 내재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교량형 사회적 자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청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연·혈연·지연 등과 같은 연고주의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는 OECD국가와 비교해 볼 때 교량형 사회적 자본이 낮고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높은 국가(유형Ⅳ)로 분류되었으며, 사회적 자본의 축적형태도 교량형 사회적 자본보다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자본이 빈약한 국가로 파악되었다.

물론 본 연구가 서베이에 기초한 인식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측정도구상의 신뢰성 문제라든지, 횡단면적 분석을 중심으로 실시함에 따라 사회적 자본인 교량형 사회적 자본과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국가별 시대적인 추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사회적 자본의 유형분류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형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각 국가의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학연·혈연·지연을 통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을 낮추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신뢰하는 교량형 사회적 자본을 제고하는 길이 청렴국가로 한 단계 더 빨리 진입할 수 있는 정책적 과제임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있다.

<참고문헌>

- 김상준. (2004). 부르디외, 콜만,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회. 38-6. 63-95.
- 김태종. (2007). 사회신뢰의 수준 및 추이에 관한 실증분석. 「사회적 자본: 정부역할과 IT」 세미나 자료집. 6-30.
- 이영현. (2006). 사회적 자본 연구동향. 「직업과 인력개발 2006 가을」.
- 조은경·이정주. (2006). 부패친화적 연고주의 문화의 국가별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학회. 40-4. 491-509.
- Bjornskov, C. (2003). Corruption and Social Capital. Working Paper 03-13. Department of Economics. Aarhus School of Business.
- Boissevain, J. (1974). Friends of Friends: Network, Manipulators, and Coalitions. New York: St. Martin's Press.
- Bryan, W. H. (1999). Wealth, culture, and corrup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 Studies. 30-2. 339-359.
- Fukuyama., F. (2000). Social Capital and Civic Society. IMF Working Paper. WP/00/74.
- Geertz, C. (1963). Peddlers and Princes. Chicago: Univ. Chicago Press.
- Getz, K. A & Volkema, R. J. (2001). Culture, Perceived Corruption, and Economics. Business & Society. 40-1. 7-31.
- Gittell, R. & Vidal, A. (1998). Community Organizing: Building Social Capital as a Development Strategy. Newbury Park. Calif: Sage Publications.
- Granovetter, MS. (1995). The economic sociology of firms and entrepreneurs. in The Economic Sociology of Immigration. Alejandro Portes(eds). 128-165
- Harris, D. (2007). Bonding Social capital and Corruption: A Cross-National Empirical Analysis. Environmental Economy and Policy Research. University of Cambridge.
- Kaufmann, D. Kraay, A. & Mastruzzi, M. (2007). Governance Matters VI: Aggregate and individual Governance Indicator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4280.
- La Porta, R. Lopez-Silanes, F. Schleifer, A. & Vishny, R. W. (1997). Trust in Large Organiz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87. 333-338.
- Lipset, S. M. & Lenz, G. S. (2000). Corruption, Culture, and Market. in Culture Matters: How Values Shape Human Progress. (eds)Harrison, L. E. & Huntington. S. P., Basic Book. New York.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 Schuster. New York/London.
- Rumbaut, R. G. (1977). Ties that bind: immigration and immigrant families in the United States. in Immigratin and the Family: Research and Policy on US Immigrants. (eds)Booth, Crouter, and Landale. 3-45.
- Uslaner, E. M. (2001). Trust and corruption.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Political Scandals: Past and Present. at the University of Salford. June.
- _____. (2002).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4). Trust and corruption. In Corruption and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eds.)Lambsdorf, J.G., Taube, M., & Schramm. M. Routledge. London.
- Waldinger, R. (1995). The Other Side of embeddedness: a case study of the interplay between economy and ethnicity. Ethnic, Racial Stud. 18. 555-580.
- Warren, M. E. (2001). Social Capital and Corruption. Department of Government. Georgetown University.

Weber, M. (1965).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New York: Free Press.

<http://www.transparency.org/>

<http://www.worldvaluessurvey.org/>